

청라 소담원재

Cheongna SODAMWON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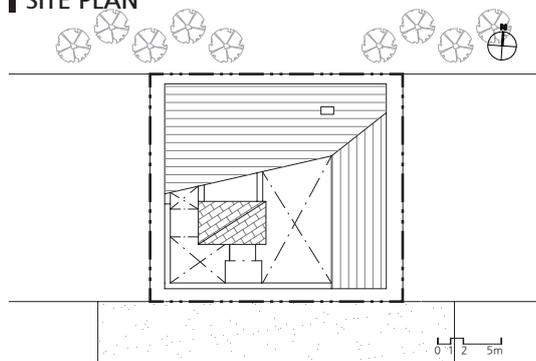
| | |
|-------|----------------------|
| 건축물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
| 용도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 주용도 | 단독주택 |
| 대지면적 | 357.20㎡ |
| 건축면적 | 175.30㎡ |
| 연면적 | 199.87㎡ |
| 건폐율 | 49.08% (법정 50%) |
| 용적률 | 55.95% (법정 80%) |
| 층수 | 지상2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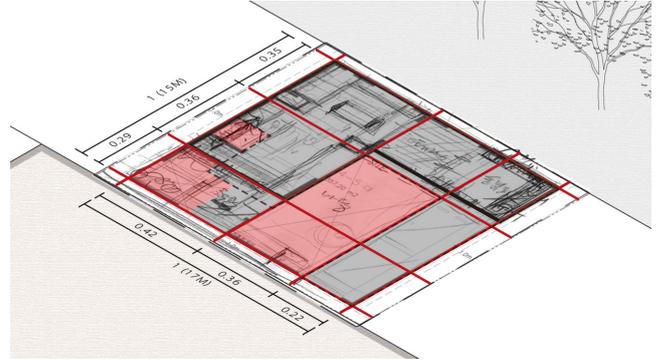


맥락과 조건

청라의 단독주택 택지 지구 내 필지로 북쪽으로 완충 녹지와 멀리 골프장 원경이 보이는 땅이다. 남쪽으로는 진입도로가 있고, 아파트 택지의 도시풍경이 보인다. 아들, 딸 남매를 둔 부부는 아파트를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집을 원했다. 마당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고, 2층도 테라스가 있어 풍부한 외부공간이 있기를 원했다. 밖으로부터 시선이 차단되지만 집 안에서는 밖의 조망을 할 수 있는 집이고자 했다. 가끔 남편 손님의 방문도 있기에 가족들의 영역이 손님들과 독립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했다.

SITE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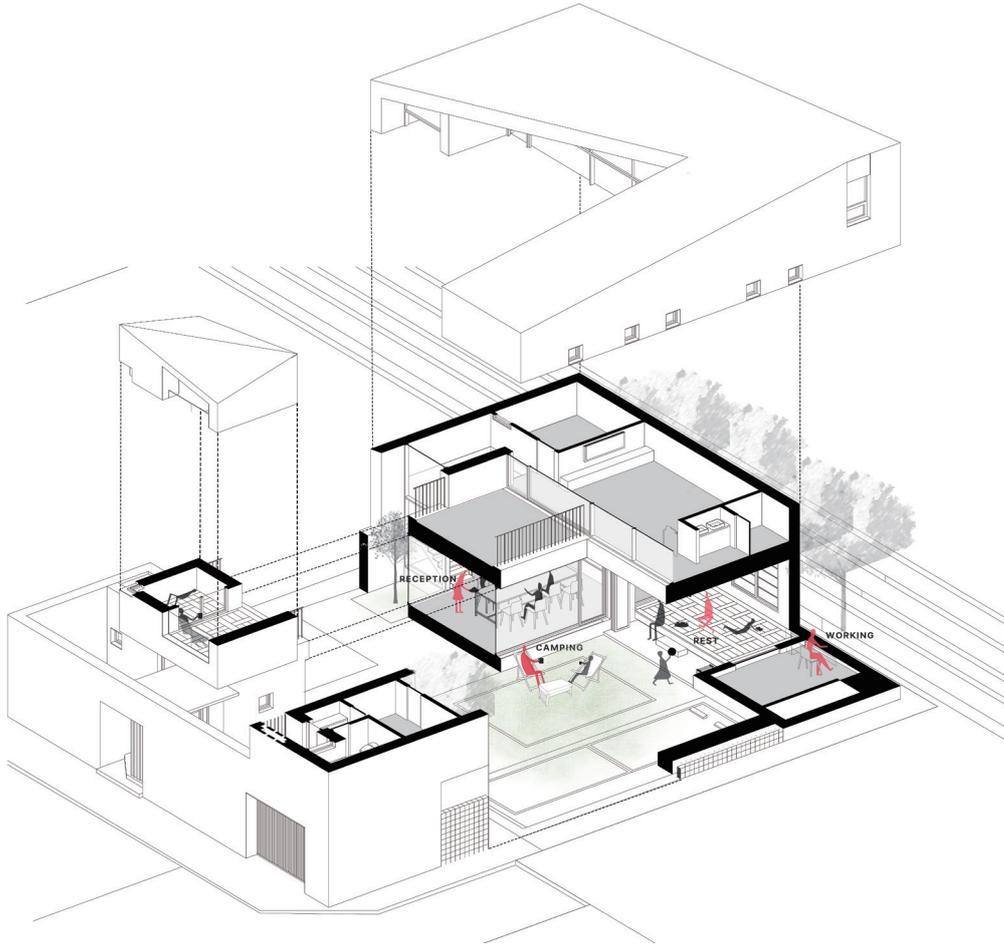




그리드로 형식화된 네 개의 마당

정방형의 땅은 수많은 그리드 선의 조율을 거쳐 9분할의 그리드로 계획되었다. 9분할은 부분적으로 더 분할 변형 되면서 평면이 세부화 된다. 이렇게 분화되면서 네 개의 다른 성격의 마당이 방들과 함께 조직된다. 1층은 대문을 진입하면서 반기는 진입마당과 터의 중심에서 집 전체와 관계 조직하는 안마당, 내부화 되면서 식당과 계단실에서 조망과 채광의 역할을 하는 작은 중정마당이다. 2층은 거실과 정자 사이에 위치하여 거실의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 탈일상의 삶을 담을 수 있는 테라스 마당이다. 네 개의 마당은 건축주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 조직하면서 삶속에 확장된다. 마당은 내부와 경계 지어진 단순한 외부가 아니라 방들과 상호 작용하면서 짝을 이루어 방들과 세트로 일상을 조직하는 지붕 없는 방이 된다. 이처럼 터를 조직하는 느슨한 그리드로 형식화된 마당들은 그리드라는 통제선 위에 삶의 유연성으로 채워지는 장소가 되는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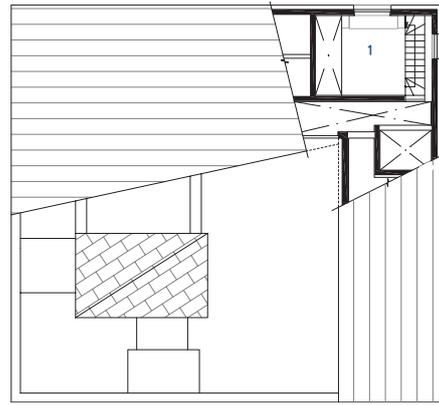




다면적 삶을 직조 하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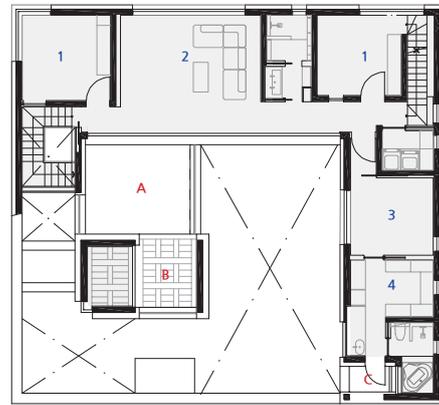
그리드로 형식화된 터의 채움과 비움의 공간은 삶의 다양한 층위로 관계 조직되어 진다. 여기서 마당은 다양한 층위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장치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일상 속 가족 간의 영역 관계, 손님과 거주인들 간의 점유 관계, 기능 방과 탈 기능 방의 일상 관계, 거주와 일(재택)의 위치 관계, 안과 밖 사이의 경계 관계 등 다층적 삶의 층위가 관계 조직되어야 한다. 가족 간 영역 관계는 1층과 2층에서 아내와 남편, 부부와 자녀의 영역구분으로 계획된다. 1층은 아내의 주 공간이자 가족 공유 공간인 부엌 식당과 남편의 서재이자 손님방이 되는 사랑방이 안마당과 대청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다. 2층은 거실을 중심으로 좌우에 남녀 자녀 방을 두고 안방은 거실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에 배치시켜 부부와 자녀 조닝을 구분시키고 있다. 방문 손님의 점유 관계는 1층 사랑방과 대청만을 점유하면서 가족들의 영역은 침범하지 않게 하였다. 사랑방은 남편의 재택근무를 위한 방으로도 사용되기에 2층 동선에서 접근을 따로 배려하였다. 1층의 대청과 2층의 정자는 기능 방들의 사이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면서,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일상공간의 경험을 더욱 다양하게 해 주고 있다. 여기서 마당은 다층적인 삶의 관계를 조직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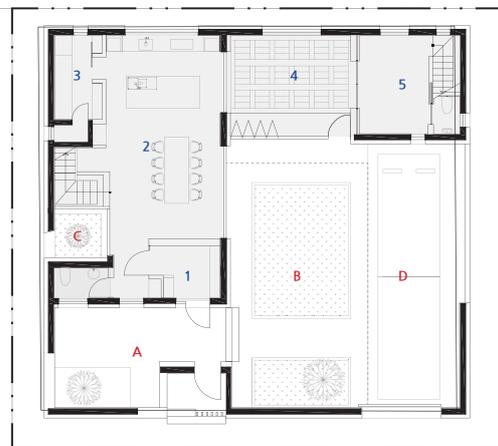
1 다락

다락 평면도



1 1인실
2 2인실
3 3인실
4 대청
A 1인실
B 대청
C 화장실
D 마당

지상 2층 평면도



1 1인실
2 2인실
3 3인실
4 대청
5 서재
A 1인실
B 2인실
C 3인실
D 대청

6M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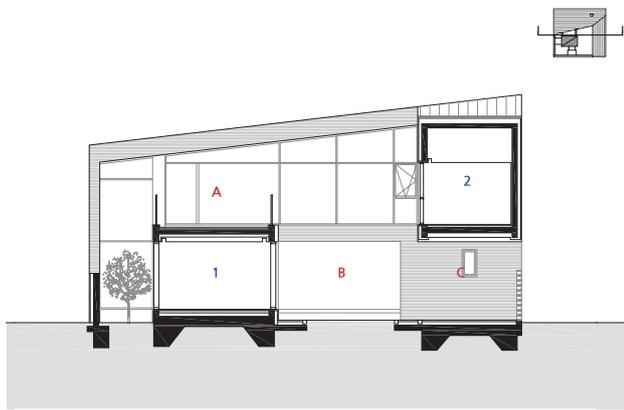
0 1 5m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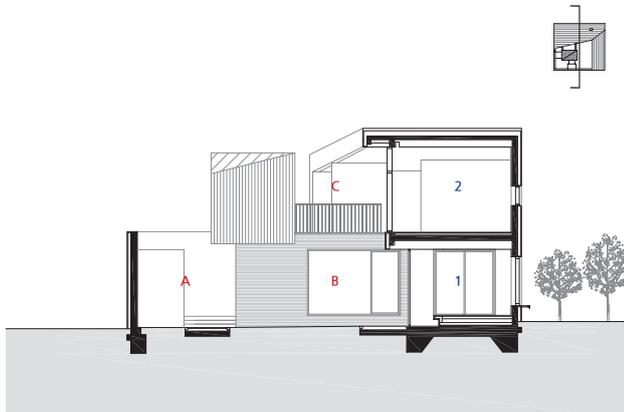
다양한 삶의 커가 겹쳐진 다층적 풍경

그리드로 만들어진 마당들과 방들의 직조는 안과 밖의 반복과 차이로 다양한 커가 겹쳐진 다층적 풍경을 만들고 있다. 마당과 대청은 경계 없이 이어지고 뒤쪽 완충녹지로 시선이 연장된다. 이 축과 교차되는 1, 2층의 다양한 커들은 가로, 세로 시선의 방향에서 안과 밖의 중첩과 함께 공간의 깊이를 만들고 있다. 그리드로 관계 조직된 마당과 방들은 시간, 자연, 감성, 탈일상, 주변 풍경 등과 중첩되면서 삶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1 식당
2 안방
A 테라스 마당
B 안마당
C 주차장



1 대청
2 거실
A 진입마당
B 안마당
C 테라스 마당

0 1 5m

